

제공일자	2014. 9. 23(화)	담당자	조영현 연구위원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32	총4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』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조영현 연구위원은 “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자본확충 전략과 위험경감전략을 실행해야 하며,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”을 주장
- 이에 보험회사에게는 자본확충 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비용을 낮추고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킬 것을 제안하고, 감독당국에게는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 허용과 RBC제도의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 반영을 제안

□ 보험연구원은 9월 24일(수)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“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”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
- 이번 세미나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위험경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됨.
- 이날 주제발표자인 조영현 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위험경감 필요성이 높음을 보이고, 자본확충과 위험경감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, 아울러 감독당국의 정책과제도 제안함.
- 이후 오창수 교수(한양대)의 사회로 금융당국자와 보험회사 담당임원 등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음.

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

- **RBC규제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와 IFRS 4 Phase II 시행에 의한 가용자본 감소로 인하여 생보사 RBC비율은 2018년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임.**
 - 금융회사는 우선적으로 감독당국의 자본규제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.
-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확충과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함.
 -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관리 방법임.

자본확충 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

- 보험회사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 - 해외 우량 보험회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채 비중이 10~20% 가량인데,
 - 이는 적절한 규모의 부채(타인자본) 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음.
- 국내에서는 규제에 의하여 우량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하여 자본확충 시 자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.
 -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150%에 근접하였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함.
-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, 후순위채의 질은 높이는 방

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- 후순위채 상시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임.

대형 생보사는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 수단을 모색할 필요

- 대형 생보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음.
 - 국내 생보사는 그동안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대출채권 중심에서 채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금리리스크를 경감시켜 왔음.
 - 이에 중소형 생보사는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급감했으나, 대형 생보사는 여전히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큰 상태임.
 - 대형사의 경우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해 국채 듀레이션을 늘릴 필요가 있으나 장기 국채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.
- 따라서, 대형 생보사는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위험경감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.
 -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.
 - 파생상품 이용으로 회계상 손익이나 자본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지만, 경제적 관점에서 금리리스크가 헤지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감독당국도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- **강호 보험연구원**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“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이 진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후생을 높이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, 보험

회사가 재무건전성을 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함”을 강조함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